

# 앞당겨진 여름...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첫 환자 예년보다 한달 빨리 발생

치사율 50%... 신속 치료 필수

어패류 익혀먹고 식기 소독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비브리오패혈증이 올해는 한 달 가량 빨리 발생, 어느 때 보다 나들이객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남해와 서해 일부 지역 해수에서 3~4월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에

게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7월께 첫 환자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이른 4월에 첫 환자가 발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작스런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 있으며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 궤양 등 피부병변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명률이 50% 이상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질환,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으

므로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는 등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연간 40~60여 명 내외 수준으로 8~9월에 최대 발생하고 해안과 내륙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가 수족관물(해수)을 경유한 어패류 섭취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족관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또 조리할 땐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하며, 날 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어패류를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패류는 가급적 5도 이하 저온으로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을 철저히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연휴 해외여행 땐 질병정보 꼭 확인”

광주시 감염병 예방수칙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광주시는 국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 각종 감염병 원인의 활동도 왕성해지는 5월에 특히 조심해야 할 감염병은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하는 설사질환 등 장관 감염병과 모기나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뇌염, 쯤쯤가무시증 등 질환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긴 옷, 기피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기피,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모기나 진드기에 의한 감염일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긴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여행 전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와 예방

수칙으로 보고되고 있는 중국 등을 여행할 때는 현지에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최근까지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여행할 때는 농장이나 사람이 북비는 장소 방문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르스나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지역을 다녀온 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수돗물 냄새 잡는 정수시설

용연정수장에 2019년 완공

광주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용연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2일 동구 용연동 용연정수장에서 고도(高度)정수처리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윤장현 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김성환 동구청장, 공사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처리 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지오스민·Geosmin)공팡이 냄새(2-MIB)를 제거하는 시설이다.

국비 349억원 등 499억원이 투입돼 2019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1일 30만톤의 물을 고도정수 처리한 뒤 가정에 공급한다.

광주시는 2012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자 수도권비 기본계획 반영과 실시시설을 해 올해 환경부의 최종 사업인가를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



대기업 따지기 보다 품질 먼저 1~2일 광주시장 1층 로비에서 열린 우수청년기업 상품 전시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명품향기를 고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어린이날 우치공원 경유 시내버스 증편

5월5일 어린이날 우치공원(매밀리랜드)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현재(평일)보다 6대, 63회 늘린 총 511회 운행된다. 우치공원 경유 버스는 지원15, 매밀26, 금남57, 용전86, 용전184 등이다.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북부서, 모뎀전자회 등에서 총 37명의 관계자가 현장에 배치돼 교통질서유지,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체증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우치공원(매밀리랜드)을 찾는 시민들의 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 북구청, 북부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마다 어린이날 우치공원(매밀리랜드)을 찾는 방문객의 교통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래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꿈나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무등산 정상 20일 을 첫 개방

광주시는 무등산 절벽이 만개한 시기인 20일 올해 들어 첫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5월21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방은 서석대 정상절리에서 부대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이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지난해 호응을 얻은 장애인,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초청 등반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번에는 이동이 불편해 무등산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중증장애인 등 20여명이 특별 초청된다.

탐방객 안전을 위해 질서계도 요원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되고, 119구급차량과

헬기가 현장에 배치되는 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무등산의 차량 혼잡구간인 총장사에서 산장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탐방객 불편을 줄이고 질서유지를 위해 북구청 교통부서와 북부경찰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증편과 임시 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 개방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무등산 정상이 군부대 영내에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일몰을 감안,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오후 4시까지 개방하므로 이므로 산행 일정 관리에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범씨 병해충 예방 17~19일 무료 소독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에 온탕 소독장을 설치하고, 17일~19일 지역 내 범씨 소독 취약계층(친환경재배, 고령, 영세농 등)에게 무료소독과 썩티우기를 지원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키다리병, 잎선충 등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범씨 소독을 지원해 농민이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광산구의 삼도·본랑 농업인상

담소, 북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온탕 소독기를 설치해 편리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키다리병 상습 발생 지역과 지난해 못지않게 심해 농가를 중심으로 약제를 이용하는 일반소독 방법과 친환경 재배를 위한 온탕침지소독법을 중점 지도한다. 범씨 무료소독 신청과 문의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062-613-5295~8).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민발명대회’ 다음달 23일까지 접수

광주시와 광주지식재산센터는 시민들의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들이 특허등록에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6월 23일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번 ‘광주시민발명경진대회’는 광주테크노파크,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아이디어 제출은 광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oc.org/gwangju)를 참조하여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지식재산센터(062-954-3841).

7월 초 예선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 아이디어 고도화, 관리화 등을 컨설팅하며, 9월 중 본선 심사(대면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우

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고 성과를 전시할 계획이다.

입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 광주광역시장상을 비롯한 총 16개의 상과 11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창업자금, 마케팅, 인증, 시험분석 등 사업과 지원 시 우대 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휴게소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총 12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19건이 특허 출원됐고, 광주테크노파크의 I-PLEX의 창업공간과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의 백양사 휴게소에서 창업지원을 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임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들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